



이재명대통령이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뉴스스

‘대통령실 군공항 이전 TF팀’, 광주·전남·무안 후속 대응

TF팀 대통령실 상주 등 건의 예정… 6개월 동안 협의할 안전 등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6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후속 대응에 나섰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이 대통령이 군공항 이전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사업 진척을 위한 데드라인을 올해 연말로 잡고 협의의 안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6자 TF팀에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지자체 3곳과 정부 3개 부처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TF팀 파견인력이 대통령실에 상주하며 협의를 이어가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을 건의할 계획이다.

TF팀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업성, 이전 대상지 지원 정책, 국비 예산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획조정실과 무안공항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공항 이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비롯해 무안 RE100 전용산단을 비롯해 솔라시도 AI 산단, 광양만권 미래 첨단산단 등 3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는 매우 수요일 상경, 국정기획위원회와 용산 대통령실, 국회 등을 찾아 현안 반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을 통해 언급된 다양한 문제들은 실무 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며 “전남의 군공항 이슈와 지역 균형발전, 미래 먹거리 문제 등이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왔던 김산 무안군수가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군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무안군도 TF팀 운영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은 대통령 직속의 군 공항 이전 6자 TF 구성원으로 참여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문제,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 객관적인 소음피해 환경 측정 등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TF팀을 구성하고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TF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이것 해달라’ 쏟아낸 광주시·전남도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 후 광주 첫 방문… 타운홀 미팅 지역민 “AI2단계·재생에너지·탄약고 이전” 건의 “사시부활·소상공인·청년 지원정책 필요”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가운데 지역민들은 현안인 광주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지속 추진과 전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광주 군공항 탄약고 이전, 사법고시 부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지난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 1부에서는 광주와 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했다.

이어진 2부는 격식없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이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이 대통령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여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지역화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남해안 쪽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던지 수출 내서 최대한 전력을 생산하게 하고 지역거점 대학 육성방안도 구체화 해야 한다”며 “직장도 교육도 삶도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을 서남해안벨트로 묶어 기존 산업을 어떻게 부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

용문제, 광주는 인공지능 지원을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이야기 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동신대교수는 “전남은 햇빛과 바람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규제때문에 더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다”며 “전남지역에 기업이 여기에 와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도 “전력생산이 포화되면서 현재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며 “전남은 전기 단가를 150원까지 낮출 수 있는데 송전망의 문제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남 솔라시도 부지도 한전의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남솔라시도에 입주하기로 한 기업이 필리핀 등으로 이전한 사례를 제시하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되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강 시장은 “빛그린산단 100만평과 미래차 국가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진곡산단에는 AI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공약에 들어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모형을 만들고 있다”며 “AI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7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논의해주고 국가컴퓨팅센터 광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국가산단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부지 개발을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올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2면에 계속)

/뉴스스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